

# NEWS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병원 전 구역 고객전용 주차장 시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3월 1일(금)부터 원장 차량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협력업체 차량의 병원 주차를 전면 통제해 내원객의 주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최근 주차 시간이 30분 넘게 소요될 정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주차난이 심해지자, 내원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직원 차량의 주차장 이용의 전면통제를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1단계 주차장 운영 대책으로 본관 및 별관 주차장에 교직원 주차를 일부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2단계 주차장 운영대책으로 이마트 명일점 주차장 60면, 중앙소방센터 주차장 50면을 확보했다. 3월 1일부로 원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차량을 외부로 이동 주차하고 병원 전 구역을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기택 원장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응적인 차원으로 개인적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동에 동의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전체 교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원 내외 주차장 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여 교직원 및 내원객의 주차 편의를 더욱 증진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역기관 간담회' 개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3월 26일(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역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그간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함께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강동·하남·송파·강남구 지역의 기관과 원내 주요 보직자가 참석하여, 지원사업 성과발표 및 2019년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11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강동구 드림스타트센터와 함께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강동구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치료 치료비, 성장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고객감동 슬로건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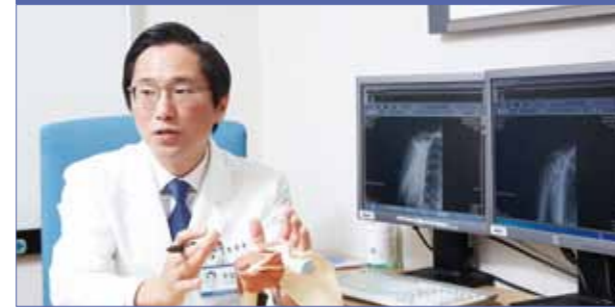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10일 별관 강당에서 '환자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라는 타이틀로 2019년 고객 감동 슬로건을 선포했다. 고객 감동의 출발선은 환자와의 소통에 있다는 취지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3가지 중점 실천항목을 공표했다. 3가지 실천항목은 '존중과 예의를 갖춘 경청', '정기적인 회진과 쉽고 자세한 설명', '행복한 경험과 따뜻한 위로'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택 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의료 환경 속에서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항상 환자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환자 중심병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 미약류 취급보고 종합병원 부문 우수사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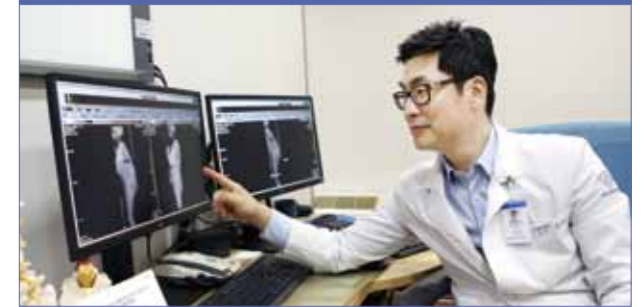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식약처와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동 발행하는 [미약류 취급보고 기관별 우수사례집]에서 미약류취급 의료업자 종합병원 부문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식약처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약류 취급 성실보고가 예상되고, 취급보고 빈도가 높은 병원과 약국을 선별하여 사전 유선면담을 통해 현황 및 미약류 취급 우수기관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 조남수 교수, 대한건·주관절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정형외과 조남수 교수가 지난 3월 29일~3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2019년 제27차 대한건·주관절학회(대한어깨·팔꿈치관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청강의학상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주관절학회 청강의학상은 매년 대한건·주관절학회 회원들이 국제 영문 학회지인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에 투고하여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학술상이다. 견관절 및 주관절 분야의 국내 의료진 가운데 학문적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하게 된다. 조남수 교수는 "역형 견관절 전치환술시 인공삽입물 디자인에 따른 수술 후 상완골 위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비교: 내측 관절와/내측 상완골, 외측 관절와/내측 상완골, 내측 관절와/외측 상완골 디자인들 간의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조남수 교수의 이번 연구를 통해 어깨 인공관절 수술의 안전한 시행 및 인공관절의 수명연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향후 임상적 치료 결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조대진 교수, 의료기기 특허권 경희대 기부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가 직접 개발한 의료기기 '척추체간 케이지'의 국내 특허권에 이어 미국·중국 특허권도 경희대학교에 기부했다. 조대진 교수는 지난 2016년 척추체간 케이지를 직접 개발해 국내 특허(특허 1015245320000, 실용신안 디자인 3007790460000, 상표등록 4020140008018)를 등록했다. 미국(US 9,788,976 B2)과 중국(第2451088號)에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2018년 특허권을 취득했다. 국내 특허 기부에 이은 해외 특허 기부에 대해 조대진 교수는 "혼자서 개발한 것이 아닌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개발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의학 발전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외 특허권도 기부를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대진 교수가 국내특허권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기부 및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2017년부터 상용화되어 척추수술 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특허를 통해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GALLERY

갤러리 마음 05월, 06월 전시 전시회 문의. 그레이스 박(010-9030-8902)



### 김영호 작가

생선통조림이 되어가는 현대인을 그리다  
물고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군상이며 하늘을 나는 물고기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꿈 그리고 희망 등을 포함한다. 현대인 자신이 상상하는 욕망과 문명, 제도, 스펙, 상품화 등으로 얼룩지고 제품화되는 부조리한 문명과 사회를 조소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 박현기 작가

드 블루, 푸른 밤의 꿈(The Blue, Dreams in the Blue Nights)  
그 꿈을 그렸다. 현재의 빛으로,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게 움직이는 서툰고 둔한 손으로 접은 종이 장난감들이 그 빛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의 꿈은 무엇에 담을 수 있으며 무엇이 꿈이 될까.  
드 블루는 지난 시간 그리고 어린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며, 동시에 그 시간에 대한 동경의 표현이다.

# 갑상선의 혹, 암일까?

외과 **송정운** 교수

EBS 명의 2019. 4. 12



암 환자 중 1위는 갑상선암으로 전체 암 환자의 21.8%에 달한다. 그만큼 건강검진에서 혹이나 결절이 발견되는 확률도 높으며 과잉 진료와 수술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생긴 혹이나 결절은 과연 암일까? 결절(혹)이 있다면 먼저 양성인지 악성(암)인지 구분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음파와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검사에서 갑상선 혹이 양성이라 진단되면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면 된다. 결절이 암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한번 결절이 생긴 사람은 결절이 또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결절이 생겼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은 아닌지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좋다.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혹이 양성인 경우에는 미세석회화 불리는 하얀 점들이 혹 안에 있거나, 위아래로 키가 큰 모양이거나, 별처럼 삐죽삐죽한 모양이 많다. 초음파 정도가 주변보다 훨씬 떨어지고 경계가 불분명하며 어렵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다. 미세한 암이더라도 종양이 주변조직에 가까이 붙어 있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다면 되도록 빨리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

▶ 다시보기: EBS 홈페이지(www.ebs.co.kr/tv/home)

# 자궁의 혹, 암일까?

산부인과 **기경도** 교수

EBS 명의 2019. 4. 19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자궁안의 혹, 자궁 안에 혹이 생겨나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60% 가까이 된다. 이 혹을 간과한다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혹이 양성이고, 또 어떤 혹이 악성일까? 만약 '양성 혹' 이라면 무조건 다 안전한 걸까?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20~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초음파 검사 시에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증상으로는 월경과다로 인한 빈혈, 생리통, 골반통, 하복통 등의 통증과 자궁에 이물감과 이상출혈 등이 나타난다. 근종이 갑자기 성장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자궁근종의 육종성 변화나 2차 변성이 의심될 수 있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약물적 치료는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데, 근종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으나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수술 전 사용해 수술을 쉽게 하고 수술 전후의 출혈을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 다시보기: EBS 홈페이지(www.ebs.co.kr/tv/home)

#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 여러분의 참여가 내일의 행복이 됩니다

후원하시는 기부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발전기금**  
최선의 진료를 위한 병원의 인프라 구축에 기여합니다.
- 연구지원**  
새로운 질병 치료법의 개발과 같은 연구에 기여합니다.
- 교육지원**  
인성과 의술을 갖춘 훌륭한 인재 양성과정에 기여합니다.
- 나눔지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사업과 복지, 의료봉사 지원에 기여합니다.



## 기부금 후원방법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서 접수

본원 별관 2층 대외협력파트(홍보팀)로 방문하시거나 팩스/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02-440-6811  
팩스 02-440-6810

### 기부금 납부

**방문 납부** 본원 별관 2층 대외협력파트(홍보팀)로 방문하셔서 기부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아래의 후원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42-910011-49404  
예금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후원 방식** 정기 후원(월별 분할 기부)  
일시 후원(약정금액을 일시 기부)

※자동이체(CMS): 약정서에 거래은행 계좌를 기재하시면 매월 자동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